

국내 폐교 현황 및 활용사례, 그리고 새로운 목표

The Status and Application Cases of Closed Schools, Expecting the New Horizons



이 화 룡 /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Lee, Hwa-Ryong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hlee@kongju.ac.kr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성장 지향적 정책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도시적, 경제적인 불균형은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의 문제를 표출시켰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와 갈등은 사회 양극화와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를 초래시켰다. 특히, 1960년대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인한 저출산 기조로 인하여 1980년대 이후 유소년 인구인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고령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면서 농산어촌 경제의 쇠퇴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학생이동으로 농산어촌·구도심지역 학교의 학생수 감소가 가속화시켰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소규모학교를 증가되었으며, 학생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폐교의 수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반대, 폐교활용관련 법령의 문제점 그리고 담당자의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폐교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폐교가 매각 또는 임대되지만 지역사회의 중심시설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글은 한국교육개발원 2015 폐교활용 우수사례 자료집을 바탕으로 폐교 현황과 우수 활용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관련 법령 및 정책

폐교와 관련된 법령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

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각종 법적인 제약으로 인한 폐교재산의 효과적인 활용이 되지 못하는 실정을 시작으로 법적인 제약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폐교의 효과적인 활용을 계획하고자 제정되었다. 이하 법률의 조항을 살펴본 결과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과 소득증대시설 등 지역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건전한 용도로의 사용을 촉진한다. 또한 그 방법과 특례에 대한 규정은 활용도를 높이는 목적이 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구분		관련조항
폐교재산 활용계획		제4조
특례	대부 및 매각	제5조
	영구시설물 축조	제6조
	용도변경	제10조
	공원계획 변경	제1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분권에 따라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분류를 시작으로 각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규정을 나타내고 있다. 각 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처분의 방법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본 법령을 살펴본 결과,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있어 방법에 대한 기준, 담당자, 관련 서류 작성기준을 중심으로 공유재산이 공적 이익창출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유도한다고 판단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위의 두 법령과는 달리 폐교재산(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경영함에 있어 필

요한 재원적인 내용의 규정을 다루고 있다. 교부금의 종류와 조성을 규정하는 법령으로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기준 외 폐교재산의 발전 및 지속을 위한 재정적 범위와 방법을 정해주는 법령으로 판단된다.

폐교활용 관련 인센티브 제도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예술꽃 씨앗학교」, 「풀뿌리기업 육성 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는 각 부처 및 기초단체에서 사업 진행 시 유희시설(폐교재산)을 활용할 경우 선정기준 우대배점 및 국비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다. 주요 대상지는 인구 공동화로 인한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지역 간 불균형한 문화 및 각종 사회지원 시설을 지원하려는 사업 속에서 폐교재산을 활용을 촉구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제도이다.

3. 폐교 현황

2015년 10월 기준 전국 폐교 학교수는 3,592개교로 전남 797개교, 경북 670개교, 경남 546개교, 강원 438개교, 전북 321개교, 충남 254개교, 충북 235개교 순이다. 폐교학교는 대부분 도교육청의 폐교수가 많았으며, 특히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 경북, 경남, 강원이었다.

시도별 폐교활용 현황

시도 교육청	폐교수(A)	매각 학교수(B)	보유현황		
			활용(C)	미활용	계
전국	3,592	2,247	938	407	1,345
서울	1	1			
부산	30	10	14	6	20
대구	28	12	15	1	16
인천	54	34	11	9	20
광주	14	7	7		7
대전	8	4	3	1	4
울산	22	9	10	3	13
세종	13	12	1		1
경기	129	54	57	18	75
강원	438	204	194	40	234
충북	235	106	99	30	129
충남	254	189	33	32	65
전북	321	269	43	9	52
전남	797	601	60	136	196
경북	670	434	193	43	236
경남	546	297	172	77	249
제주	32	4	26	2	28

시도별 매각 학교수는 2,247개교로 약 62.6%가 매각되었으며, 전남이 601개교로 가장 많았다. 매각은 서울 100%,

세종이 92.3%, 전북 83.8%로 높았고 부산이 33.3%로 가장 낮았다.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1,345개교이며, 이중 활용되고 있는 학교는 938개교로 전체폐교수의 26.1%에 해당된다.

매각되거나 활용하고 있는 학교의 사용률은 약 88.7%로 서울, 광주, 세종은 100%로 가장 높았고 부산 80.0%, 전남 82.9%, 인천 83.3%로 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활용학교는 407개교로 전남이 136개교, 경남 77개교, 전북 43개교, 강원 40개교로 대체로 폐교수가 많은 지역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폐교 매각 및 활용현황

시도 교육청	사용률		
	매각률(B/A)	활용률(C/A)	계
전국	62.6%	26.1%	88.7%
서울	100.0%	0.0%	100.0%
부산	33.3%	46.7%	80.0%
대구	42.9%	53.6%	96.4%
인천	63.0%	20.4%	83.3%
광주	50.0%	50.0%	100.0%
대전	50.0%	37.5%	87.5%
울산	40.9%	45.5%	86.4%
세종	92.3%	7.7%	100.0%
경기	41.9%	44.2%	86.0%
강원	46.6%	44.3%	90.9%
충북	45.1%	42.1%	87.2%
충남	74.4%	13.0%	87.4%
전북	83.8%	13.4%	97.2%
전남	75.4%	7.5%	82.9%
경북	64.8%	28.8%	93.6%
경남	54.4%	31.5%	85.9%
제주	12.5%	81.3%	93.8%

매각된 폐교의 매수자현황은 공공기관 712개교, 지역민 및 조합 153개교, 학교 및 재단 80개교, 종교 및 복지단체 50개교, 개인 및 기업 1,252개교로 개인 및 기업이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대체로 개인 및 기업의 매수가 많았으나 강원도는 공공기관에서의 매수가 가장 많았다.

폐교시설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교육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대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매각 후 시설사용 현황은 공공시설 35개교, 교육시설 681개교, 문화시설 211개교, 복지시설 327개교, 체육시설 33개교, 농업생산시설 250개교, 소득증대시설 538개교, 종교시설 29개교, 군사시설 19개교, 도시계획편입 124개교로 교육시설과 소득증대시설이 많았다. 또한 강원도지역의 댐건설이나 공원으로 편입되는 도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

시계획편입이 타시도보다 많았다.

매수자별 학교사용 현황은 공공기관은 교육시설이 180개교, 문화시설 127개교, 복지시설 111개교, 도시계획편입 112개교로 교육시설이 가장 많았다. 또한 타매수자보다 택지개발지구나 댐건설 등에 따른 도시계획편입이 월등히 많았다. 지역민과 조합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농업생산시설이 많았다. 학교 및 재단과 종교 및 복지단체는 교육시설이 가장 많았다. 개인 및 기업은 소득증대시설과 교육시설이 타 시설사용보다 많았다.

미매각되고 활용되고 있는 학교들의 시설별 현황은 교육시설 328개교, 문화시설 78개교, 복지시설 86개교, 체육시설 30개교, 농업생산시설 90개교, 소득증대시설 325개교로 교육시설이 가장 많았다.

교육시설의 경우는 자체활용이 많았으며, 기타시설들은 유상대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설의 경우 교육청에서 자체활용 시에는 학교급변경이나 통폐합 시 거점학교, 평생학습시설, 교육청청사 등으로 활용하거나 체험시설 및 수련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교육시설의 경우 기업 연수시설, 직업훈련소, 캠프장 등 체험시설이나 학습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은 대부분 유상 대부되고 있으며 미술관, 박물관, 극단, 문화센터, 창작스튜디오 등 다양한 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었다. 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비롯해 지역주민 이 함께 사용하는 복지시설이 많았다. 체육시설은 사회인야구장, 체육공원, 축구교실 등으

로 사용되고 있었다. 농업생산시설과 소득증대시설은 대부분 지역주민이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청별 활용하고 있는 폐교들의 건물 활용률은 자체활용 93.0%, 유상대부 98.2%, 무상대부 96.7%이며, 전체적으로는 927개교 중 899개교(97.0%)가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40개교 중 32개교(80.0%)만이 건물을 활용하고 있어 가장 낮은 건물 활용률을 나타냈다.

대부방법은 무상대부의 경우 모두 수의계약이며, 유상대부는 경쟁입찰 85개교, 제한경쟁 1개교, 수의계약 583개교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수의계약 비중은 교육시설 87.1%, 문화시설 91.7%, 복지시설 98.6%, 체육시설 78.6%, 소득증대시설 81.0%, 농업생산시설 96.5%로 복지시설이 가장 높고 체육시설이 가장 낮았다.

미활용 되고 있는 폐교는 407개교이며, 초 371개교, 중 24개교, 고 12개교로 초등학교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36개교, 경남 77개교, 경북 43개교, 강원 40개교, 충남 32개교, 충북 30개교로 많았다. 대체로 농어촌이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이 미활용 폐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북과 제주도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미활용 폐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시지역이 도지역보다 적었으며, 인천이 9개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 광주, 세종은 미활용 폐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매각 후 시설사용 현황

구분	공공 시설	교육 시설	문화 시설	복지 시설	체육 시설	농업 생산	소득 증대	종교 시설	군사 시설	도시 계획편입	계
전국	35	681	211	327	33	250	538	29	19	124	2,247
서울			1								1
부산	1		1	2			6				10
대구	1	1		4		3				3	12
인천		4	3	11	1		9	2	1	3	34
광주		3					2		1	1	7
대전	1	1		1			1				4
울산	1	1		1						6	9
세종		4	1				2			5	12
경기	1	9	3	3	1		28		3	6	54
강원	1	55	24	31	2	14	45	4	7	21	204
충북	1	44	8	6		8	30	3	2	4	106
충남	5	71	20	43	2	15	26		2	5	189
전북	1	87	19	39	7	26	65	6	1	18	269
전남	16	181	67	91	12	88	123	6	1	16	601
경북	4	127	39	50	7	79	105	4		19	434
경남	2	93	25	45	1	17	92	4	1	17	297
제주							4				4

4. 폐교활용사례

폐교활용사례는 도심지, 농촌지역, 특색사업, 문화시설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도심지는 부산글로벌빌리지 영어체험시설을, 농촌지역은 강원도 정선의 개미들수련원을, 특색사업으로는 전북 익산교도소촬영시설을, 문화시설은 경북 영천 시안아트박물관 등의 사례들이다.

4.1 부산글로벌빌리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영어체험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산글로벌빌리지를 건립하고자 2004년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건축비 320억원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는 부지를 제공하였다. 2005년 4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협약을 시작으로, 2006년 9월 설계 및 공사 착공, 2008년 6월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9년 7월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자 선정을 통해 2009년 7월 부산글로벌빌리지를 개원하였다. 부산글로벌빌리지는 학생 및 청소년과 시민의 영어구사력 증진과 영어권 문화에 대한 체험을 통한 국제화 능력 배양으로 부산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저비용 및 양질의 영어체험기회 제공으로 외화유출 및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부산글로벌빌리지는 구)개성중학교 부지에 건물 2개동(5층)을 영어체험교육에 적합하게 건립하였고, 영어도서관은 부산의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 시민들의 시공간을 초월한 스마트 영어교육을 실시한다. 주요시설로는 체험테마시설, 학습실, 강의실, 회의실, 멀티미디어실 등 50개 체험실 등으로 구성하여, 이용자의 참여와 영어체험 학습 위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운영은 부산글로벌빌리지 위탁운영 업체인 (주)부산글로벌빌리지에서 상황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주요프로그램은 출입국 수속, 대중교통 및 호텔 이용 등 해외여행프로그램, 언어 및 문화강좌, 현지사정 문의하기 등 영어권문화원체험, 수학/과학교실, 도서관·박물관 이용하기 등 영어권학교체험, 은행, 상점, 경찰서, 우체국, 편의점, 병원 등 외국생활체험, 연극, 음악, 마술 등 예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전학교를 활용한 부산글로벌빌리지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체험형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어캠프에는 일반인과 기업, 단체는 물론 일본, 베트남, 중국, 러시아 유학생들의 참가도 매년 늘어나는 등 세계로

향하는 영어마을로 성장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부산시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꿈나무 영어캠프’도 매년 개최해 영어교육 평등화에 앞장서고 있다. 2009년 7월 이후 현재까지 25만명 이상 체험형 영어교육시설을 이용, 참가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90%이상으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부산글로벌빌리지 전경(출처 : 네이버사진)

4.2 개미들수련원

개미들수련원은 강원도 정선의 남선초등학교 낙동분교장이 2010년 폐교됨에 개인이 대부분아 운영하고 있다. 개미들수련원은 농촌마을이 관광소비의 공급처로 발전하고 있고, 농촌체험으로 농촌사회 유지의 대안이 되고 있으며,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그대로 활용해 다양한 농촌체험활동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폐교를 대부분 받은 첫해, 농촌체험학습장 운영에 필요한 폐교의 시설물을 리모델링하였고, 특색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미들마을에서는 자연환경이 수련한 곳에 위치한 폐교를 대부분아 다양한 농촌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여 외부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해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개미들마을에서는 난타 체험, 떡메치기와 인절미 먹기 체험, 자전거 하이킹 체험, 농사 체험, 맨손 송어 잡기 체험 등이 운영되고 있다. 산소길 걷기, 풍경차타고 마을한바퀴, 통가리 보쌈, 산나물 채취, 족대로 고기 잡기 등의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2011년도에 농촌체험학습장을 운영해 수학여행단 8,000명이 방문을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수학여행단 16,260명과 일반 체험단 1,555명이 방문하였고, 2013년도에는 수학여행단 19,999명과 일반 체험단 2,033명이 개미들마을을 방문했다. 2014년도에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수학여행단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수도권의 학교들 수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학여행단 약 30,000명 정도가 개미들마을을 방문해 농촌을 체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개미들마을에서 농촌체험학습장을 운영하여 2010년 12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2012년 1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농어촌마을’에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3년 2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을 받았으며, 2013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유쾌한 우리 농업겨루기’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



자전거 하이킹 체험(출처 : 개미들수련원)

4.3 익산 교도소영화촬영장

익산 교도소세트장은 상당초 남성분교 폐교를 개조한 영화 촬영장으로 수감시설 관람과 체험이 가능하다. 익산 교도소세트장은 남성분교가 폐교된 후 학교 부지 위에 교도소 건물을 올린 것으로 아직도 본관 건물과 널찍한 운동장이 옛날 학교의 흔적이 남아있다. 교도소세트장은 2005년 영화<홀리데이> 촬영을 위한 세트장으로 익산시와 영화제작사가 손을 잡고 세웠다. 이후 <거룩한 계보>, <타짜>, <식객>, <해바라기>를 촬영했고, 드라마 <아이리스>, <태양을 삼켜라>, <수상한 삼형제>와 가장 최근에는 <노란 복수초>, <더킹투하츠>도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익산교도소세트장은 영화촬영세트와 분장실, 대기실, 탈의실, 화장실 등의 시설이 있다. 교도소세트장 내부는 철문과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디찬 쇳덩어리와 회색 벽이 음울한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높은 천장과 작은 창문으로 새어드는 빛이 교도소 공간임을 실감나게 해 주고 있다. 특히, 교도소 내부는 면회장, 취조실, 수감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감시설은 2층으로 좌우 양쪽에

나란히 이어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은 들어갈 수 없지만, 1층 독방과 2층의 일부 수감시설은 내부까지 둘러볼 수 있다.

1층 독방은 드라마 <더킹투하츠>에서 중국 공안에게 잡힌 주인공이 수용되었던 독방이다. 당시 벽에 썼던 붉은 글씨가 지금도 남아 있다. 교도소세트장 곳곳에서 일부러 남겨둔 당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내부를 둘러보다 보면 교도소 이름도 ‘익산교도소’ ‘안양교도소’ 등 다양하다. 곳곳에 붙은 표어나 일본어로 표기된 부착물들을 통해 시대적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교도소영화촬영장 외부전경(출처 : 네이버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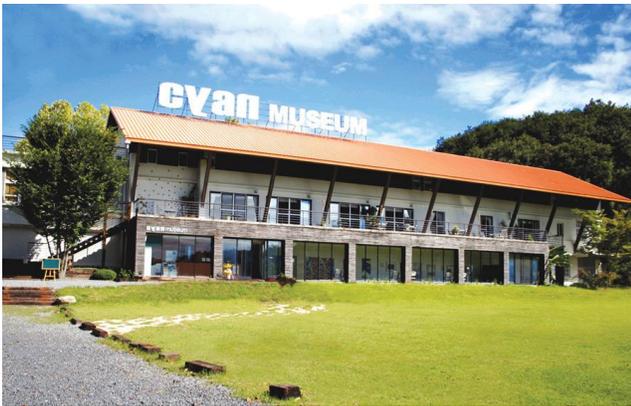
4.4 시안미술관

시안미술관은 1999년 폐교된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초등학교 가상분교를 3년간 임대해 사용하다가 2002년 매각되었고,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1종 미술관으로 2004년 개관했다. 시안미술관은 7,000여 평의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옛 학교의 향수와 현대식 첨단건축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리노베이션 기간을 거쳐 6,000여 평을 잔디로 새 단장한 야외조각장과 함께 고풍스런 유럽식 현대건축물로 조성되었다. 자연을 그대로 담은 시안미술관은 미술관으로써의 기능과 동시에 시민들의 마음의 쉼터로 자리잡아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안미술관은 미술관의 기본 기능인 미술자료의 연구, 수집, 전시의 기능과 함께 교육부분을 특성화하여 연구하고 시도함으로써 전문 미술관 교육을 지역시민에게 제공하여 수도권과의 문화서비스의 수준차이를 좁히고 편중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시안 미술관은 3층의 일자형건물과 별관을 갖고 있으며 운동장도 있다. 1층은 제 1전시실, 세미나실, 아트숍, 사무공간이 있고, 2층은 제 2전시실과 카페, 테라스, 3층은 제 3전시실과 자료실, 수장고가 위치해 있고 운동장에도 대형조각품이 있다. 시안미술관은 전시 외에 미술교육과 작가

양성, 미술자료 연구와 학술활동 등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말예술교육사업인 꿈다락 토요일 문화학교 ‘이음과 두드림’을 2012, 2013년 잇따라 운영했다.

2007년도 시안미술관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로도 지정이 되었다. 특히, 2005년 한국여행작가협회로부터 ‘폐교를 활용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 본 미술관은 최근 들어 TV 드라마 촬영지와 가수음반앨범 촬영지로도 각광받는 등 경북 내 중요한 문화관광 및 문화예술교육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박물관협회 주관의 ‘2012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콘테스트’에서 ‘알록달록 무지개미술관 프로그램’으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자연과 예술을 결합시킨 1박 2일 프로그램 ‘에코뮤지엄캠프’도 성공작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시안미술관 김현민 학예실장은 2013년 ‘올해의 젊은 큐레이터상’을 수상했다.



시안미술관 전경(출처 : 시안미술관)

5. 끝맺음

도심지나 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경우, 폐교시설에 대한 매입수요나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으나 대부분의 농어촌 폐교지역은 미활용되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청의 투자보다는 지자체 혹은 민간의 투자 없이는 운영과 지속적인 관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폐교 지역사회는 학교가 없어짐에 따른 상실감은 단순히 학교가 없어지는 것 외에 지역의 역사성,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 등이 사라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폐교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되어야 되며,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또한 소규모학교 정책은 교육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

여야 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이 지역사회의 반발로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즉, 재정효율화보다는 통합 후 교육적·사회적 효과를 이해시키고, 폐교되는 지역사회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복지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폐교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상대적인 박탈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교육청 뿐 만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 방향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폐교 시설의 지역주민들 교육·복지·문화·공공체육시설로의 활용 등 각 주체별로 다양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폐교 중 매각된 학교는 62.5%이며 교육청이 활용 중이 학교는 26.1%인바, 교육청 역시 교육시설로 주로 활용하고 있어 지역주민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 못하다. 일본의 경우 약 20%가 매각되며, 80%가 자체 활용하고 있으며 폐교시설들은 지역사회의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교육, 문화, 복지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폐교시설들이 지역사회의 중요 공공시설로서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하며 지역의 부족한 복지 및 중심시설로 활용되도록 제도적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1. 한국교육개발원(2015), 폐교활용우수사례
2. 문화체육관광부(2009),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연구
3. 환경부(2012), 폐교활용 환경교육 타당성 조사·연구
4. 정철(2012), 전남지역 폐교의 효율적 활용 방안, 전남발전연구원
5. 마상진(2010), 농촌의 폐교활용 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김기남(2011), 폐교의 처분과 활용,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7. 이숙영(2013), 폐교의 효율적 재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